

## 살충제 buprofezin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

성낙도\* · 유성재 · 최경섭 · 권기성<sup>1</sup>

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응용생물화학부, <sup>1</sup>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

**요약 :** 45°C의 15%(v/v) dioxane 수용액중에서 살충성 buprofezin(IUPAC: tert-butylimino-3-iso-propyl-5-phenylperhydro-1,3,5-thiadiazin-4-one)의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와 pKa상수(5.60)를 측정하고 pH-효과, 용매효과 ( $m=0.34$ ,  $n=2.45$  및  $1 \gg m$ ), 열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( $pH 4.0$ ,  $\Delta H^\ddagger = 11.12 \text{ kcal} \cdot \text{mol}^{-1}$ ,  $\Delta S^\ddagger = -5.0 \text{ e.u.}$  및  $E_{act}=11.76 \text{ Kcal}$ ), 반응 속도식등의 반응 속도론적 및 생성물분석(1-isopropyl-3-phenyl urea) 등의 비속도론적 실험결과를 얻었다. 이들 자료의 검토로부터 pH 8.0이하의 산성용액에서는 특정( $k_{H3O^+}$ ) 및 일반 산-촉매반응에 의한 A-S<sub>E</sub>2형 및 A-2(또는 A<sub>Ac</sub>2)형 반응, 그리고 pH 9.0이상의 알카리성 용액에서는 일반염기 촉매반응( $k_{H2O}$ )에 의한 친핵성 첨가-제거 ( $Ad_N-E$ )반응이 사면체(sp<sup>3</sup>)중간체를 경유하는 궤도-조절 반응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을 제안하였다. 또한, Buprofezin은 산성( $pH 8.0$ 이하)용액보다 염기성( $pH 8.0$ 이상) 용액중( $k=10^{-8} \text{ sec.}^{-1}$ )에서 더욱 안정하였으며 45°C의 중성( $pH 7.0$ ) 수용액 중에서 반감기( $t_{\frac{1}{2}}$ )는 약 3개월이었다. (1997년 10월 20일 접수, 1998년 2월 27일 수리)

**Key words :** 2-tert-butylimino-3-isopropyl-5-phenyl-1,3,5-thiadiazin-4-one, buprofezin, hydrolysis mechanism, half-life( $t_{\frac{1}{2}}$ ),  $Ad_N-E$  reaction.

### 서 론

잔류 수준과 약효 지속성을 조절하기 위한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 연구의 한 예로 sulfonyl urea계 제초제(Sung 등, 1995 및 1996)들은 aryl backbone의 전자끌게 정도에 따라 sulfonyl group 인접 amino group의 탈양성자화 반응(pKa)에 의존적인 (E<sub>i</sub>)anion반응과 (E<sub>i</sub>CB)<sub>R</sub>반응으로 그리고 살충제인 imidacloprid(Sung 등, 1997)는 nitrimine-nitramine tautomerism에 의한 이성화 반응과 nitromethylene계 화합물의 안정성으로 인한  $Ad_N-E$  반응으로 잔류성이 큰 이유와 구체적인 반응경로들이 설명된 바 있다.

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buprofezin은 80년대초에 개발된 Juvenile hormone(JH)활성에 의한 chitin생합성 저해(Matazasorren, 1987)에 따른 완효성 살충제로써 이화명충과 더불어 수도작에 큰 피해를 주는 벼멸구와 같은 흡즙성 곤충에 대하여 강한 살충활성을 나타내는 Applaud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진(Ikeda 등, 1994) 화합물이다. 이와 유사한 일련의 살충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buprofezin분자의 1,3,5-thiadiazin-4-one 고리를 변형한 isothio urea 유도체들의 구조-활성관계(SAR)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 있으

나 (Sung 등, 1995 및 1997) 살충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환경독성과 잔류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. 다만, 수용액 속에서 buprofezin의 잔류효과가 carbamate계 살충제보다 길며 (Technical information, 1985) 산성과 염기성 용액중에서 안정하다(Tomlin, 1994)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.

본 연구에서는 pH-효과, 용매효과, 생성물 분석 및 열역학적 활성화 파라미터 등의 속도론적 및 비속도론적 실험결과로부터 다루어진 바가 없는 buprofezin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제안하고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.

### 재료 및 방법

#### 시약 및 기기

시료로 사용된 buprofezin은 경농(주)에서 제공받은 원제(95% up)을 정제하여 사용하였으며 반응속도 상수 측정에 사용된 dioxane, ethylacetate 등 용매와 sodium phosphate, sodium acetate 및 sodium perchlorate 등 염류들은 Aldrich제와 Junsei제 1급 시약이었다.

반응속도상수의 측정에는 Hewlett Packard 8452A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를, 그리고 구조확인에는 Varian EM-360 모델(200MHz)의 <sup>1</sup>H NMR 및 <sup>13</sup>C NMR

\*연락처자

Spectro-meter를 각각 사용하였다. 또한, 반응용액의 pH는 Beckman사의 pH<sup>TM</sup>34 모델의 pH-meter로 조절하였다.

### 분자궤도 함수량의 계산

HyperChem 프로그램(Ver.4.0)으로 최적화(Minimized)된 buprofezin 분자의 LUMO, HOMO 에너지(e.v.), 결합 파라미터, 생성열 및 LUMO contours 등 분자궤도(MO) 함수량은 PM3 방법(HyperChem, 1993)으로 계산하였다.

### 반응 속도상수의 측정

반응속도 상수는 소정의 완충용액으로 pH가 조절된(pH 2.0~12.0) 20%(v/v) dioxane 수용액에 sodium perchlorate를 가한(이온세기( $\mu$ )=0.1M) 45°C의 반응용액 중에서 UV분광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buprofezin의 흡광도( $\lambda_{\text{max}} = 248\text{nm}$ ,  $\log \epsilon = 4.10$ ) 변화로부터 반감기( $t_{\frac{1}{2}} = 0.693/k$ )를 측정하고 1차 반응속도상수( $k \cdot \text{sec}^{-1}$ )를 구하였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도변화와 용매의 조성에 따른 속도상수로부터 pH-효과, 용매효과 및 열역학적 파라미터 등의 반응속도론적 자료들을 얻었다.

pKa 상수는 PCA 101(Sirius Analytical Instruments Ltd.) Autotitrat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

### 가수분해 반응 생성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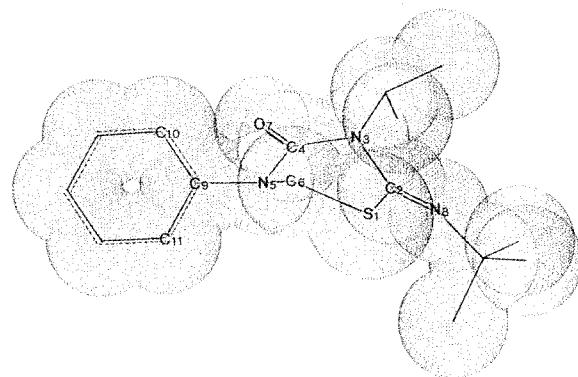
반응 속도상수의 측정 조건과 같은 반응용액(pH 4.0 및 pH 9.0)에 buprofezin( $R_f = 0.74$ ) 0.5g을 녹이고 3~5주간 환류한 다음에 용매를 제거하고 column chromatography로 분리 정제하였다. 녹는점을 측정하고 구조를 확인한 결과, 생성물은 1-isopropyl-3-phenylurea( $R_f = 0.14$ , TLC(ethyl-acetate : hexane=1:4))와 t-butylamine(Feigl, 1960)이었으며 urea에 대한 기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.

M.P.: 151~152°C., <sup>1</sup>H NMR( $\text{CDCl}_3/\text{TMS}$ ) $\delta$ (ppm): 1.1(d, 6H), 3.8~4.0(m, 1H), 5.7(d, 1H), 6.9~7.0 (m, 1H), 7.1~7.3(m, 4H), 7.7(s, 1H), <sup>13</sup>C NMR( $\text{CDCl}_3/\text{TMS}$ ) $\delta$ (ppm): 23, 42, 120, 123, 129, 139, 156., MS(m/e, %): M<sup>+</sup> 179

### 결과 및 고찰

#### Buprofezin의 반응성

분자내 원자들 간의 반발에너지가 최적화(minimized)된



**Fig. 1. Numbering scheme of heavy atoms and dot surface of Van der Waals sphere of minimized buprofezin molecule.**

가장 안정한 분자(생성열: -2.256Kcal/mol, 이온화 포텐셜: 9.328, 전체에너지: -3216.792 e.v. 및 쌍극자 능율: 2.315D)의 Van der Waals 표면구조(그림 1)와 분자내 원자번호를 표시하였으며 결합 파라미터들을 계산한 결과, N-phenyl group과 평면성 1,3,5-thiadiazin 고리는 서로 수직에 가깝게( $\angle \text{C}_{10}\text{C}_9\text{N}_5\text{C}_4 = 76.8^\circ$ ) 배향되어 있다.

구조상 전자친화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(S)와 물 분자(hard base)와의 접동이론(Klopman, 1974)에 의한 경계분자궤도(FMO)함수 상호작용(Fleming, 1976)의 관계는 에너지차( $\Delta E = -11.9610$  e.v.)가 적은 (S)의 LUMO(-0.3554e.v.)와 물 분자의 HOMO(-12.3163e.v.)사이에 궤도조절 반응(orbital-control)이, 물 분자의 LUMO(4.0596e.v.)와 (S)의 HOMO(-9.3302e.v.) 사이의 전하조절 반응보다 약간 우세하게 진행되는 전형적인 친핵성반응으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, 분자내 HOMO(-9.3302e.v.)와 LUMO(-0.3555 e.v.)사이의 에너지차( $\Delta E = 8.975$  e.v.)가 207Kcal/mol로 큰 값을 나타내므로 (S)는 유의할만한 반응성이 예상되는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.

#### pH효과와 반응속도식의 유도

pH에 따른 반응 속도상수의 변화를 나타낸 sigmoid pH-rate profile(그림 2)로부터 pH 1.0~4.0에서는 일반산-촉매반응( $k_{\text{AH}}$ )이 그리고 pH 8.0~12.0 사이에서는 물분자에 의한 일반염기(Maskil, 1985) 촉매반응( $k_{\text{H}_2\text{O}}$ )으로 반응 속도상수가 pH에 무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. 그러나 pH 8.0~4.0 사이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상수가 증가하는 특정 산-촉매( $\text{S} + \text{H}_3\text{O}^+ \rightleftharpoons \text{SH}^+$ ) 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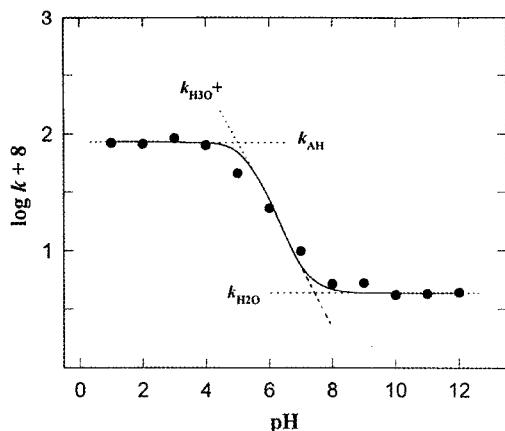


Fig. 2. pH rate profile and half life( $t_{\frac{1}{2}}$ ) for the hydrolysis of Buprofezin in 15%(v/v) aqueous dioxane at 45°C., The points are experimental and solid line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equation (3).

Table 1. Bond parameters of buprofezin molecule

Bond	length(Å)	Charges	Bond angle(°)
S <sub>1</sub> -C <sub>2</sub>	1.80	S <sub>1</sub> 0.0429 <sup>a)</sup>	∠C <sub>2</sub> S <sub>1</sub> C <sub>6</sub> 99.9
C <sub>2</sub> -N <sub>3</sub>	1.46	C <sub>2</sub> -0.1036 <sup>a)</sup>	∠S <sub>1</sub> C <sub>2</sub> N <sub>3</sub> 115.8
N <sub>5</sub> -C <sub>6</sub>	1.48	N <sub>3</sub> -0.0232 <sup>a)</sup>	∠S <sub>1</sub> C <sub>2</sub> N <sub>8</sub> 127.3
S <sub>1</sub> -C <sub>6</sub>	1.82	C <sub>4</sub> 0.2491 <sup>a)</sup>	∠N <sub>3</sub> C <sub>2</sub> S <sub>1</sub> C <sub>6</sub> -19.2 <sup>b)</sup>
C <sub>2</sub> -N <sub>8</sub>	1.28	N <sub>5</sub> 0.0038 <sup>a)</sup>	∠S <sub>1</sub> C <sub>6</sub> N <sub>5</sub> C <sub>9</sub> -154.8 <sup>b)</sup>
N <sub>3</sub> -C <sub>4</sub>	1.45	C <sub>6</sub> -0.1354 <sup>a)</sup>	∠C <sub>2</sub> S <sub>1</sub> C <sub>6</sub> N <sub>5</sub> -34.7 <sup>b)</sup>
		O <sub>7</sub> -0.3539	∠C <sub>6</sub> N <sub>5</sub> C <sub>9</sub> C <sub>10</sub> -69.9 <sup>b)</sup>
		N <sub>8</sub> -0.1034	∠C <sub>4</sub> N <sub>5</sub> C <sub>9</sub> C <sub>10</sub> 71.8 <sup>b)</sup>
			∠C <sub>6</sub> S <sub>1</sub> C <sub>2</sub> N <sub>8</sub> 162.7 <sup>b)</sup>

<sup>a)</sup>Net charges of atoms in 1,3,5-thiadiazin ring,

<sup>b)</sup>Twist angle.

응( $K_{SH^+}$ )이 일어나고 있으나 일반 산 및 염기 촉매반응 속도상수간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. 따라서 전체 반응속도식은 (1)식과 같다.

$$k_{obs} = k_1[SH^+] + k_{H2O} \quad (1)$$

양성자화 반응( $[S]_r = [S] + [SH^+]$ )으로부터 짹산( $SH^+$ )의 농도를 (1)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benzene sulfonylurea의 경우(Sung 등, 1995)와 같은 유형으로 반응속도식은 (2)식과 같이 표현된다.

(2)식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여 나타낸 (3)식으로 계산된

$$k_{obs} = k_1 \left( 1 - \frac{K_{SH^+}}{[H^+] + K_{SH^+}} \right) + k_{H2O} \quad (2)$$

pH에 따른 계산( $k_{calc}$ )값들이 관측( $k_{obs}$ )값과 잘 일치(그림 2)하였다. 여기에서  $k_1$ 값은 pH 4.75에서 측정된  $8.5 \times 10^{-7}$ ,  $k_{H2O}$ 값은 일반염기 촉매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의 평균 속도 상수 값( $4.3 \times 10^{-8} \text{ sec}^{-1}$ )이다. 특히, 이 식으로 구한 계산값 ( $K_{B, calc} = 1.0 \times 10^{-6}$ )과 실측치 ( $K_{B, obs} = 2.51 \times 10^{-6}$ )가 ( $pK_b = 8.4$ ) 거의 일치하므로 (S)의 가수분해 반응은 제안된 A-2(또는  $A_{AC2}$ )형(Lowry 등, 1989) 및  $Ad_N-E$ (Issacs, 1987) 반응메카니즘으로 반응이 일어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.

$$k_{obs} = 8.5 \times 10^{-7} \left( 1 - \frac{2.51 \times 10^{-6}}{[H^+] + 2.51 \times 10^{-6}} \right) + 4.3 \times 10^{-8} \quad (3)$$

이상과 같은 검토로부터 pH 8.0 이상에서는 pH에 무관한 속도상수 변화를 나타낸다. 따라서, 중성과 알카리성보다 산성용액에서 반응속도가 다소 빠르기는 하였으나  $k_{H3O^+}$ 와  $k_{H2O}$ 값의 차이( $\Delta k$ )가 작기 때문에 넓은 pH에서 두루 안정( $k: 10^{-7} \sim 10^{-8} \text{ sec}^{-1}$ )한 화합물이었으며, 45°C의 중성(pH=7.0)에서 반감기( $t_{\frac{1}{2}}$ )는 약 80일이었다. 유기화합물들의 반응속도가 10°C 차이로 증가할 때마다 대략 2~3배로 증가(Avery, 1981)하므로 실온(25 °C)에서 (S)의 반감기는 최소 1년이상으로 완전히 분해하는데는 2년여의 시간이 요구되는 잔류성이 비교적 큰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.

### 용매 및 온도의 효과

반응속도 상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용매의 이온화력(Y)과 친핵성도(N)와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확장 Grunwald-Winstein식( $\log k = mY + lN$ )에 적용(Kevil, 1996)한 (4)식(pH 4.0; r=0.97)으로부터 용매의 이온화력(Y) 보다 친핵도(N)가 월등히 크다( $m: l = 1:16$ )는 사실을 알았다.

그러므로 친핵체-(S)사이의 결합형성( $l$ )이 (S)-이탈기 사이의 결합파괴( $m$ )보다 월등히 큰 경향( $|m| \ll |l|$ )으로 진행되는 전이상태를 거치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.

$$\log k = 0.611Y - 9.72N - 3.31 \quad (4)$$

반응속도상수(pH 4.0)의 온도변화(표 2)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Arrhenius식 ( $\ln k = -E_a/RT + 1/T + \ln A$ )에 적용하여 활성화에너지( $E_a = 11.76 \text{ Kcal}$ )를 구하였다.

또한 열역학관계식에 적용( $\ln k = -5920.2 \cdot 1/T + 4.388$ )하여 얻은 (5)식( $r=0.95$ )으로부터 큰 음의 entropy( $\Delta S^\ddagger = -52\text{e.u.}$ )와 enthalpy( $\Delta H^\ddagger = -11.12\text{Kcal/mol}$ )를 각각 구하였다. 여기에서 entropy값이  $\Delta S^\ddagger = -28\sim -48\text{ e.u.}$  범위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본 반응은 친핵성 첨가-제거( $\text{Ad}_N-E$ )반응형으로 일어날 것(Issacs, 1987)으로 믿어진다.

$$\ln(k/T) = 5616.8 \cdot 1/T - 2.328 \quad (5)$$

이와같은 속도론적 자료로부터 본 반응은 친핵체-(S) 간의 결합생성과 (S)-이탈기 간의 결합파괴 정도가 같은( $m = l$ ) 전이상태를 경유하는  $\text{S}_{\text{N}}2$ 형으로 진행되는 반응이 아니라, (S)-이탈기 간의 결합파괴보다 친핵체-(S) 사이의 결합형성이 월등히 큰( $m < l$ ) 전이상태를 경유하여 사면체( $\text{sp}^3$ ) 중간체를 거치는 A-2(또는  $\text{A}_{\text{AC}2}$ )형 반응이나  $\text{Ad}_N-E$ 형 등의 반응 메카니즘으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.

**Table 2. First order rate constants( $k_{\text{obs}} \cdot 10^6 \text{sec}^{-1}$ ) and activation parameters for the hydrolysis of buprofezin at pH 4.0**

$308(^{\circ}\text{K})$	$318(^{\circ}\text{K})$	$328(^{\circ}\text{K})$	$338(^{\circ}\text{K})$	$\Delta H^{\ddagger \text{a)}$	$\Delta S^{\ddagger \text{b)}$	$E_{\text{act}}^{\text{c)}$
3.590	0.648	1.21	1.94	-11.16	-54.61	11.78

a, c) kcal/mol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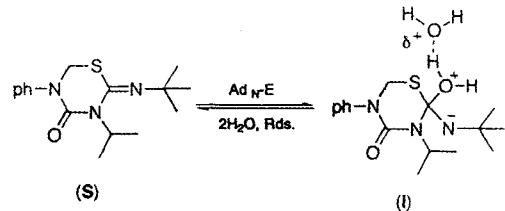
b)  $\text{kcal} \cdot \text{mol}^{-1} \cdot \text{K}^{-1}$ (e.u.)

###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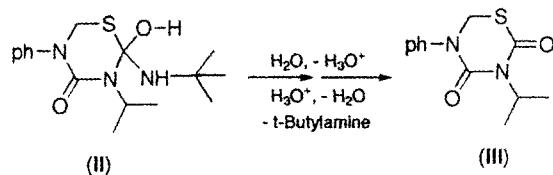
이상과 같은 비속도론적 및 속도론적 결과로부터 실험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을 scheme에 제안하였다. 먼저 반응의 중심으로는 2-imino-1,3,5-thiadiazin-4-one 고리중의 imino group과 carbonyl group이 있으나 urea( $\text{pKa}:0.18$ ) 부분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으므로 imino group에 대하여 친핵성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.

pH 8.0 이상의 염기성 용액중에서 물 분자에 의한 일반 염기(B)촉매(Klopman, 1974) 반응( $k_{\text{H}_2\text{O}}$ )으로 일어나는  $\text{Ad}_N-E$  반응(Issacs, 1987)의 첫단계는 imino group의 azomethine 탄소( $\text{C}_2$ )원자에 대하여 물 분자의 친핵성 첨가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속도 결정단계(slow)로서 그 결과, 사면체( $\text{sp}^3$ )인 중간체 (I)이 생성된다.

이때 첨가하는 2개의 물 분자는 친핵체이자 일반 염기(B)로 작용(March, 1992)하여 이탈된 hydronium이온은



urea 고리 중의  $\text{N}_3$ 원자보다 음하전의 크기가 큰 t-butylamino group의  $\text{N}_8$ 원자(표 1)에 대한 양성자화가 빠르게 일어나 중간체(II)를 생성하게 된다. 그리고 (II)의 hydroxyl group은 다시 물 분자에 의한 탈 양성자화로 carbonyl group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 $\text{N}_8$ 원자로의 양성자화가 일어난다. 왜냐하면, carbonyl group인접의  $\text{N}_3$ 원자는  $\text{N}_8$ 원자보다 음하전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. 그 결과 t-butylamino group이 이탈되어 중간체인 3-N-isopropyl-5-phenyl-1,3,5-thiadiazin-2,4-dione(III)을 경유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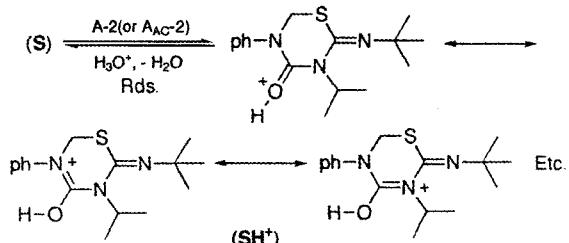


중간체 (III)에 대하여 물 분자는 1,3,5-thiadiazin-2,4-dione고리 중의 안정화된 urea의 carbonyl 탄소( $\text{C}_4$ )원자보다 먼저  $\text{S}$ 원자 인접 carbonyl 탄소( $\text{C}_2$ )원자에 대한 친핵첨가-제거반응으로  $\text{C}_2-\text{N}_3$  결합이 분해되어 고리 열림반응이 일어난다. 이어서  $\text{C}_6$ 원자에 대한 친핵 치환반응으로  $\text{N}_5-\text{C}_6$  결합이 분해되는 등의 몇 단계 반응을 거쳐 최종 생성물(prd.)인 1-isopropyl-3-phenyl urea로 이어지는 일련의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왜냐하면,  $\text{C}_2(0.2778)$ 가  $\text{C}_6(0.0975)$ 보다 양하전이 클( $\text{C}_2 > \text{C}_6$ ) 뿐만 아니라, 친핵반응성은 FMO이론(Klopman, 1974)에 따라 LUMO에너지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. 특히, (III)에 대한 LUMO contoures(그림 3)로부터 반결합성의  $\text{C}_2-\text{N}_3$ 와  $\text{C}_6-\text{N}_5$  결합사이에 부호가 서로 다른 큰 원자궤도(AO) 계수로 인한 매듭(node)이 존재하므로 이를 결합이 용이하게 분해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. 여기에서 분자내 HOMO(-9.2369 e.v.)와 LUMO(-0.9308 e.v.)사이의 에너지차( $\Delta E = 8.306$  e.v.)가 191.5Kcal/mol로 큰 값을 나타내므로 (III)은 반응

성이 매우 큰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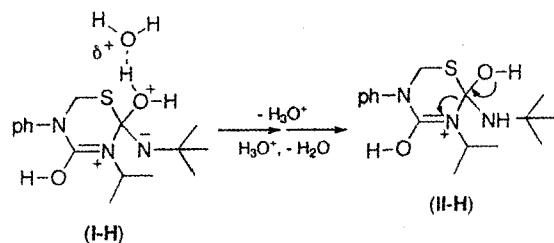
반면에 pH-rate profile(그림 2)으로부터 pH 8.0~4.0 사이의 산성용액에서는 특정 산-촉매( $k_{H_3O^+}$ ) 반응이, 그리고 pH 1.0~4.0 사이에서는 일반 산-촉매 반응( $k_{AH}$ )이 각각 일어난다. 그러므로 pH 1.0~4.0에서는 양성자화 단계가 속도 결정단계인 prototropic mechanism으로 진행되는 A-S<sub>E</sub>2형(Gold, 1968) 반응이, 그리고 pH 4.0~8.0에서는 양성자화된 다음에 물분자의 친핵첨가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protolytic mechanism으로 진행되는 A-2형 반응(Lowry 등, 1989)이 일어날 것이다. 따라서 두 반응 모두 양성자화된 다음에 물분자가 친핵첨가하는 반응으로 속도 결정 단계(rds.)만이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A-2형 반응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.

A-2(또는 A<sub>Ac</sub>2) 반응(Lowry 등, 1989)의 첫단계는 (S)의 carbonyl oxygen(O<sub>7</sub>)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(pK<sub>b</sub>)으로 Arrhenius 착물인 짹산(SH<sup>+</sup>)이 빠르게 생성되는 pre-equilibrium 단계이다. 여기에서 양성자의 이동속도는 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용매화의 힘으로 설명되는 수소결합의 세기에 의한 것으로 물 분자의 매개로 일어(Edward 등, 1976) 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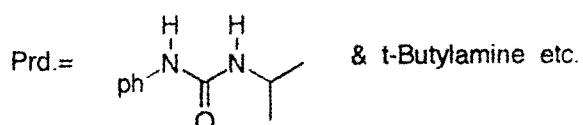


2단계 반응은 양성자화된 카르보닐 탄소가 우선적으로 친핵체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urea 구조의 공명안정화로 azomethine 탄소(C<sub>2</sub>)원자 인접의 N원자가 양하전이 증가됨에 따라 C<sub>2</sub>원자의 친핵반응성이 증가된다. 그러므로 물분자가 짹산(SH<sup>+</sup>)을 탈 양성자화시키는 반응과 azomethine 탄소(C<sub>2</sub>) 원자에 대하여 물 분자의 친핵첨가 반응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느린 반응이므로 속도 결정단계(Rds.)이며 그 결과로 carbonyl oxygen protonation된 중간체 (I-H)가 생성되는 단계이다.

이후의 반응은 앞서 Ad<sub>N</sub>-E 반응(Maskill, 1985)의 경우와 같이 2개의 물 분자가 친핵체이자 일반 염기(B)로 작용(Avery, 1981)함으로써 (I-H)로부터 hydronium 이온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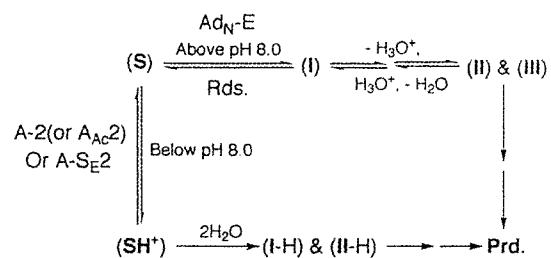


이탈되어 t-butylamine group의 N<sub>2</sub>원자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으로 (II-H)를 경유한 다음에 몇 단계 반응을 거쳐 1-isopropyl-3-phenyl-lurea와 t-butylamine 등 생성물(prd.)로 이어지는 일련의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 따라서 산성용액 중의 반응에서 urea의 염기도는 N-치환기에 의존적이며 carbonyl group에 대한 양성자화 반응으로 enolization(prototropic process) 됨(Patai, 1966)으로써 N<sub>2</sub>원자는 양하전을 띠게 된다. 그러므로 (II-H) 중 C<sub>2</sub>원자의 2-hydroxyl group은 다른 물 분자에 의한 탈양성자화로 carbonyl group이 생성되면서 동시에 C<sub>2</sub>-N<sub>2</sub> 결합이 분해되는 고리열림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믿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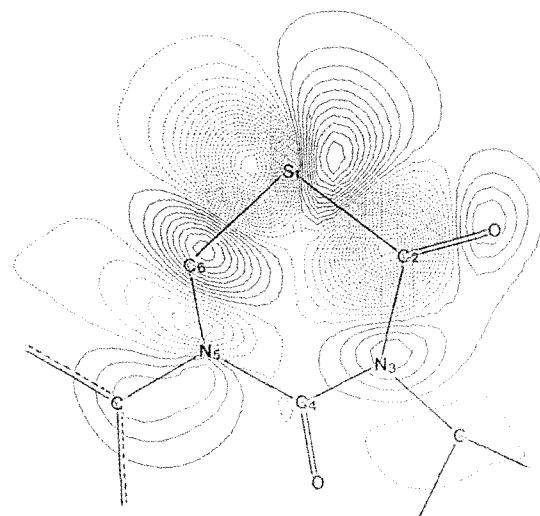


이와 같은 검토에 따라 산성과 염기성 수용액 중에서 (S)는 비교적 안정한( $k=10^{-7} \sim 10^{-8} \text{ sec.}^{-1}$ ) 화합물이며 pH 8.0을 중심으로 산성 영역에서는 A-S<sub>E</sub>2형 반응과 A-2(또는 A<sub>Ac</sub>2)형 반응이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Ad<sub>N</sub>-E형 반응이 각각 일어난다. 따라서 중성(pH 7.0~9.0)에서는 이들 반응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매우 복잡한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이다.

Buprofezin 분자가 imidacloprid(Sung 등, 1997)나



Scheme



**Fig. 3. LUMO Contours of (III).** Positive contours are solid lines and negative contours are dashed lines.

benzenesulfonyl urea(Sung 등, 1995) 등과 같은 화합물들에 비하여 반감기( $t_{\frac{1}{2}}$ )가 실온에서 1년 정도로 작은 주된 이유는 반응중심인 azomethine 탄소(C<sub>2</sub>)를 포함하고 있는 1,3,5-thiadiazin 고리가 공명현상으로 평면에 가까운 형태에 따른 결합각의 무리와 특히, dicarbonyl 중간체(III)의 큰 반응성에 기인한 결과로 설명된다.

가수분해 반응메카니즘의 연구는 시료분자의 반응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은 물론, 고활성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반응 중 활성화된 중간체의 구조를 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약개발이 가능하다. 특히, (III)과 같은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응용된 화합물로는 제초제로 개발된 bromacil, terbacil 및 hexazinone 등(Tomlin, 1994)이 알려져 있다.

### 인용문헌

- Avery, M. E. (1981) Basic Reaction Kinetics and Mechanisms, Ch. 4. p.47. The MacMillan Press Ltd., London.
- Edward, M. A. and S. Gianfranco (1976) Advanced Physical Organic Chemistry, Vol. 13. pp.84~147, Academic Press, London.
- Fleming I. (1976) Frontier Orbitals and Organic Chemical Reactions, Ch. 3., John Wiley & Sons, London.
- London.
- Feigl, K. (1960) Spot Tests in Organic Analysis, Elsevier Pub. Co., Maruzen, Ch.4. pp.247~248.
- Gold, V. ed., (1968) Advanced in Physical Organic Chemistry, Vol. 6. pp.63~101. Academic Press. London & New York.
- HyperChem (1993) HyperChem for Windows. Ch. 7. Chemistry Calculation Hyper-Cube Inc., Ontario, Canada.
- Ikeda, K., H. Yasui, and S. Mackawa (1994) Development of A New Insecticide, Buprofezin, J. Pesticide Sci. 11:287~295.
- Issacs, N. S. (1987) Physical Organic Chemistry, Ch. 12. p.554 & pp.579~583, Longman Scientific & Technical, New York.
- Kevil, D. N., In Development and Uses of Scales of Solvent Nucleophilicity, M. Charton. Ed., (1996) Advances in Quantitative Structure Property Relationships., Vol. 1. p.81, JAI Press Inc., London.
- Klopman G. (1974) Chemical Reactivity and Reaction Paths, Ch. 4. pp.55~165, John Wiley & Sons, New York.
- Lowry, T. H. and K. S. Richardson (1989) Mechanism and Theory in Organic Chemistry, 3rd ed., Ch. 3. p.276 & Ch. 8. p.697, Harper & Row Pub. New York.
- March, J. (1992) Advanced Organic Chemistry. Ch. 10. p.379, John Wiley & Sons, New York.
- Maskill H. (1985) The Physical Basis of Organic Chemistry, Oxford Science Pub., Ch. 8. pp.343~354.
- Matazasorren, H. (1987) Mode of Action of an Insect Growth Regulator, Buprofezin, Nippon Nogi Kagaku, 61. 1609~1611.
- Patai, S., Ed., (1966) The Chemistry of the Carbonyl Group. Ch. 9. p.446. Basicity of Carbonyl Compounds. Interscience Pub. London.
- Technical information, 61~2(1985) Nihon Nohyaku Co., Ltd. pp. 2~14.
- Tomlin, C., Ed., (1994), The Pesticide Manual, (10th ed.), pp.128~129, Crop Protection Publications, Surrey, U.K.
- 성낙도, 정경채, 전동주, 김대황(1995a) 2-(n-octyl)-3-(n-

propyl)isothiourea 유도체의 살충활성에 미치는 N-치환 Amino group의 영향, 한국농화학회지 38:163~167. 성낙도, 이찬복, 류재욱, 김대황(1995b) 제초성 N-(2,6-dimethoxyypyrimidin-2-yl)aminocarbonyl-2-(1-hydroxy-2-fluoroethyl)benzenesulfonamide 유도체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, 한국농화학회지 38:455~462. 성낙도, 이광재, 김용집, 김대황(1996) 제초성 Flazosulfuran의 Smile Rearrangement, 한국농화학회지 39:

70~76.

성낙도, 유성재, 강문성(1997a) 살충성 Imidacloprid의 가수분해 반응 메카니즘, 한국농화학회지 40:53~57.

성낙도, 유성재, 전동주, 김대황(1997b) 1-치환-2-(n-octyl)-3,3-diisopropylpseudothiourea 유도체의 살충활성에 미치는 1-치환 imino group의 영향, 한국농약과학회지 1:1~6.

#### **Kinetics and mechanism of hydrolysis of insecticidal buprofezin**

Nack-Do Sung\*, Seong-Jae Yu, Kyung-Sub Choi and Ki-Sung Kwon<sup>1</sup>(Division of Applied Biology & Chemistry, College of Agriculture, Chung-nam National University, Taejon 305-764, Korea,

<sup>1</sup>Department of Chemistry, College of Natural Sciences, Chung-nam National University, Taejon 305-764, Korea)

**Abstract :** The hydrolysis rate of insecticidal buprofezin(IUPAC: tert-butylimino-3-isopropyl-5-phenylperhydro-1,3,5-thiadiazin-4-one) in the range of pH 2.0 and 12.0 have been examined in 15%(v/v) aqueous dioxane at 45°C. The hydrolysis mechanism of buprofezin is proposed from the pH-effect, solvent effect( $\ell \gg m$ ), thermodynamic parameter( $\Delta H^\ddagger = 11.12 \text{ Kcal} \cdot \text{mol}^{-1}$  &,  $\Delta S^\ddagger = 5.0 \text{ e.u.}$ ), rate equation and hydrolysis product, 1-isopropyl-3-phenyl urea. General acid catalyzed hydrolysis and specific acid catalyzed( $k_{\text{H}_3\text{O}^+}$ ) hydrolysis through A-S<sub>E</sub>2 and A-2(or A<sub>Ac</sub>2) reaction mechanism with orbital-control reaction proceed below pH 8.0 and above pH 9.0, the nucleophilic addition-elimination, Ad<sub>N</sub>-E mechanism via tetrahedral(sp<sup>3</sup>) intermediate is initiation by general base catalyzed( $k_{\text{H}_2\text{O}}$ ) reaction. Buprofezin was more stable in alkaline ( $k=10^{-8} \text{ sec.}^{-1}$ ) than acid solutions from the sigmoid pH-rate profile. And the half-life( $t_{\frac{1}{2}}$ ) of hydrolysis reaction in neutral aqueous solution(pH 7.0) at 45°C was about 3 months.

\*Corresponding author